

사회생활이 어려워

(성격 장애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누구는 성질이 나쁘다든지, 누구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어떤 특정인의 두드러진 성격적 결함에 관한 제 삼자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다.

성격 장애 또는 인격 장애(人格障礙)란 심한 퇴행(退行)이 없다는 점에서 정신병과 다르고, 자신이 괴로워하는 경우보다는 타인과 사회 전체에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경증(노이로제)과도 다른 특별한 장르의 환자 군(群)이다.

성격장애는 그 특징적인 경향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특징적인 행동 패턴은 보통 개인적, 사회적 생활 안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된다. 대개 그런 특징들은 사춘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거의 평생을 통해 변함없이 유지된다.

보통 ‘센님’, ‘꼰대’, ‘카멜레온’, ‘살살이’로부터 ‘괴짜’, ‘외계인’, 또는 ‘히틀러’나 ‘프랑켄슈타인’에 이르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그들이 별명에 어울리는 특징적인 성격과 외관을 갖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 도저히 사회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중 일부는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러 평생토록 감옥을 들락거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드물게는 보통 사람들이 해내기 어려운 일을 해냄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들의 성격 경향과 사회적 반응의 특성은,

- 첫째, 외부의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하며 비적응적 행동을 보인다는 점,
- 둘째, 업무 수행 능력이나 애정의 능력 부족이 노이로제 환자들 보다 심하다는 점,
- 셋째, 언제나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반응으로 일어나며, 대체적으로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점 등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라는 말은 곧 평생 동안 변하기 어려운 성격장애의 특징을 잘 함축하고 있는 우리 조상의 혜안(慧眼)이 담긴 속담이라 할 수 있다.

성격장애란 그 자체가 신경증이나 정신병이 아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성격의 특정 부분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이유는 어떤 특정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린다면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데 있다.

가령 의심과 편견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진 편집형 성격장애 환자는 부인의 정조를 의심하는 편집 장애(의처증)라는 심한 신경증, 또는 피해망상이나 관계망상과 함께 그 망상에 어울리는 환청을 동반한 편집형 정신 분열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장애는 그 특징에 따라서 대략 3가지의 큰 그룹으로 분류된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특하고 께싸 같은 분위기를 가진 편집형, 정신 분열성, 정신 분열형 성격장애,

둘째,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변덕스럽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히스테리성, 자기애적(自己愛的),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셋째, 내향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피동 공격형 성격장애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각각의 성격 유형은 대인관계를 할 때 독특한 패턴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며, 동시에 이들이 일생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예상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성격의 유형에 관한 특징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과는 어떤 형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는 어느 선에서 교류(交流)의 한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지 가능하게 해줌으로 하여 공자님이 말씀하신 불과근 불과원(不週近不週遠)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